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8 pp. 182-189, 2022

https://doi.org/10.5762/KAIS.2022.23.8.182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대학생의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장미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Child Abuse and Abnormal Eating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Anxiety

Mikyung Jang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아동기 부모학대경험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211명이었으며, 부모 학대, 사회불안과 이상섭식행동에 관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Sobel 검증으로 통계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학대(r=.15, p<.05)와 방임(r=.18, p<.05)은 대학생의 이상섭식행동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불안은 부모의 정서학대(z=3.17, p<.01) 및 방임(z=3.05, p<.01)과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보여 부모의 정서학대와 부모방임은 사회불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모의 학대를 예방하고 적절히 개입하는 것과 부모 학대로 인해 야기된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동기 부모학대경험이 이후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parental child abuse and abnormal eating behavior and to determine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mediated by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Two hundred and eleven college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about parental abuse, social anxiety, and abnormal eating behavior.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obel test in SPSS ver. 25. The results showed that emotional abuse(r=.15, p<.05) and neglect(r=.18, p<.05) by parent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abnormal eating behavior. In addition, social anxiety was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child abuse (especially,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nd abnormal eating behavior.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words : Child Abuse, Social Anxiety, Abnormal Eating Behavior, Mediating Effects, Collage Students

본 논문은 2020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Jang(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email: mkj07@mail.knou.ac.kr
Received May 3, 2022 Revised June 7, 2022
Accepted August 3, 2022 Published August 31, 2022

1. 서론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운동이나 식이습관의 조절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과체중이라 지각하고 과도한 체중감량을 시도하기도 한다[1].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여학생은 BMI(Body Mass Index) 평균이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감량을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조사 대상국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여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상에 예민한 것은 만성적이고 강박적인 다이어트를 유발하고, 섭식행동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하는 섭식장애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3].

섭식장애는 개인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기능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부적응적인 섭식관련 행동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과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 등이 있다[4].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체중 증가에 대한 큰 두려움으로 음식 섭취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거부함으로써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신경성 폭식증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먹는 폭식 행동과 이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구토 등의 보상행동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급격한 신체 발달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신체상에 과도하게 예민하고 관심이 증가되어 있는 청소년기는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 마르고 싶은 욕망, 잘못된 식이 습관 등으로 인해 이상섭식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증가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5]. 이상섭식행동(abnormal eating behavior)은 체형 및 체중에 대한 걱정으로 음식의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음식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다 참지 못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 치우는 등 정상범위를 벗어난 섭식행동을 가리킨다. 섭식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대개 적절한 개입과 치료를 받게 되지만, 경미한 이상섭식행동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문제행동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섭식행동은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등과 공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며 방치할 경우 심각한 섭식장애로 발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섭식장애가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5], 섭식장애로 발전될 수 있는 청소년기의 이상섭식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기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조사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6] 여러 가지 정신병리의 위험요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섭식장애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미성년자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보호자가 기본적인 발달에 필요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지원을 하지 않는 방임을 의미한다고 정의된다[8]. 학대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에 의해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손상행위를 말하며,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협박을 가하고 습관적이거나 극단적인 말로 자기존중감을 해치는 언어적인 공격을 일삼고, 경멸, 모욕감, 수치심을 주는 등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처우 형태를 말한다. 또한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9].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이후 섭식장애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경험은 섭식장애의 발병 위험을 3배-5배로 증가시켰으며, 섭식장애 환자들 중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21-59%로 나타났다[10,11]. 아동기에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섭식장애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이상섭식행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들도 있는데, 아동기 때 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폭식행동을 증가시켰으며[12], 음식에 대한 집착, 식이조절 등과 관련한 부적응적인 섭식 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는 이후 청소년의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모든 청소년에게 이상섭식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거나 매개하는 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섭식장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불안장애가 섭식장애에 선행되는 경우가 많아 불안장애는 섭식장애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된다[14]. 불안정한 정서는 폭식과 같은 섭식장애를 유발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15], 섭식장애에 동반되는 불안장애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사회불안장애라고 알려져 있다[16]. 임상적으로 진단받은 사회불안장애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타인 앞에서 일을 수행해

야 하는 경우에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와 사회적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회불안 역시 이상섭식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은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7], 사회불안은 폭식행동의 경향을 높인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18]. 그러므로 불안장애가 섭식장애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해 볼 때, 사회불안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섭식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 기초하여,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섭식장애로 진단받은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학대, 사회불안,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은 대학생의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불안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대학생 211명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설문 중간에 설문 작성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평균 나이는 21.4세였으며, 남학생이 90명(42.7%), 여학생이 121명(57.3%)이었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 사회불안,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2.2.1 부모학대 척도

Straus[19]가 개발한 44문항의 Conflict Tactics Scale-Parent-Child(CTSPC)가 부모의 정서학대와 신체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부모의 특정한 행동 빈도를 측정하며,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7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학대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정서학대가 .82였으며, 신체학대는 .75이었다.

부모의 방임은 Parker, Tupling과 Brown[20]이 개발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BI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배려척도 12문항과 과보호 척도 13문항의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려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재코딩한 후, 배려척도를 역코딩하여 부모의 방임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0이었다.

2.2.2 사회불안 척도

사회불안은 Liebowitz[21]가 개발한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이며,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공포나 불안 혹은 회피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총 25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0이었다.

2.2.3 이상섭식행동

이상섭식행동은 Fairburn과 Cooper[22]가 개발한 Eating Disorders Examination Questionnaire(ED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DE는 28문항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되어 있다. 설문지는 4개의 하위척도(음식제한, 섭식걱정, 체형걱정, 체중걱정)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서 묻고 있는 특정한 형태의 행동이 나타난 날짜의 수를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3이었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부모학대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23]가 제시한 분석 방법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24]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z값의 절대값이 1.96 이상이면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보며, 2.58 이상이면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변인인 부모의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사회불안 및 이상섭식행동(이후 주요 연구 변인들로 표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학대, 사회불안과 이상섭식행동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우선 부모 학대는 이상섭식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부모의 정서학대($r=.15$, $p<.05$)와 부모의 방임($r=.18$, $p<.05$)이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 학대는 사회불안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부모의 정서학대($r=.22$, $p<.01$)와 부모의 방임($r=.23$, $p<.01$)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았다. 반면, 부모의 신체학대는 이상섭식행동이나 사회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불안은 이상섭식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r=.18$, $p<.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Variable	1	2	3	4	5
1. Emotional Abuse	-				
2. Physical Abuse	.82**	-			
3. Neglect	.38**	.36**	-		
4. Social Anxiety	.22**	.09	.23**	-	
5. Abnormal Eating Behavior	.15*	.10	.18*	.18**	-
M	19.40	20.86	45.06	33.54	.19
SD	28.98	37.80	11.09	24.44	.16

*$p<.05$, **$p<.01$, ***$p<.001$

3.2 부모 학대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부모 학대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23]의 모델에 근거하여 세 단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 학대의 각 하위유형(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에 대하여 별개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 학대가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 학대가 종속변인인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 학대와 매개변인인 사회불안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회귀식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부모 학대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는 세 번째 단계 회귀모델에서 독립변인(부모학대)의 Beta계수가 그 이전 단계보다 작아지거나 무의미해지고, 매개변인인 사회불안의 Beta계수가 유의미하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23].

먼저 부모의 학대 변인 중 정서학대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Table 2],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서학대가 매개변인인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정서학대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게 나타났다(β = .22, $p<.01$). 두 번째 회귀모델에서 정서학대는 종속변인인 이상섭식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β = .15, $p<.05$), 정서학대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의 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사회불안은 이상섭식행동을 유의하

Table 2. Mediating Role of Social Anxiety on the Relationship of Emotional Abuse and Abnormal Eating Behavior.

	Steps	β	t	R^2	F
1	(IV → Me) Emotional Abuse → Social Anxiety	.22	3.17**	.05	10.03**
2	(IV → DV) Emotional Abuse → Abnormal Eating Bahavior	.15	2.20*	.02	4.84*
3	(IV, Me → DV) Emotional Abuse → Abnormal Eating Bahavior	.12	1.66	.04	4.40*
	Social Anxiety → Abnormal Eating Bahavior	.15	2.04*		

IV : Independent Variable, DV : Dependent Variable, Me : Mediating Variable, *$p<.05$, **$p<.01$, ***$p<.001$

Table 3. Mediating Role of Social Anxiety on the Relationship of Neglect and Abnormal Eating Behavior.

Steps		β	t	R^2	F
1	(IV → Me) Neglect → Social Anxiety	.23	3.21**	.05	10.31**
2	(IV → DV) Neglect → Abnormal Eating Bahavior	.18	2.49*	.03	6.19*
3	(IV, Me → DV) Neglect → Abnormal Eating Bahavior	.12	1.70	.06	6.15**
	Social Anxiety → Abnormal Eating Bahavior	.19	2.61*		

IV : Independent Variable, DV : Dependent Variable, Me : Mediating Variable, *p<.05, **p<.01, ***p<.001

게 예측하였으나(β = .15, p<.05), 정서학대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β = .12, p> .05). 따라서 사회불안은 정서학대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즉, 부모의 정서학대는 사회불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불안이 부모의 정서학대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z값이 3.17(p<.01)으로 나타나 부모의 정서학대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완전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부모의 학대 변인 중 방임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Table 3],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방임이 매개변인인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모의 방임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게 나타났다(β = .23, p<.01).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방임이 종속변인인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여서(β = .18, p<.05), 방임이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의 수준도 높았다.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불안은 이상섭식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β = .19, p<.05), 부모의 방임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β = .12, p>.05). 따라서 사회불안은 방임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의 방임은 사회불안을 통해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불안이 부모의 방임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방임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완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3.05, p<.01). 그러나, 부모의 학대 변인 중 신체학대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에서는 부모의 신체학대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가 대학생의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모 학대 변인 중에서 정서학대와 부모방임은 이상섭식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부모의 정서학대와 방임이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 학대 경험이 신경성 폭식증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11] 높은 신경성 폭식증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25]으로 나타나 아동기 학대경험은 섭식장애와 관련되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학대와 방임은 이후 대학생의 이상섭식행동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기 부모의 정서학대와 방임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26,27]. 그들의 연구에서 부모의 정서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사회불안이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관관계 분석에서 부모의 신체학대는 대학생의 이상섭식행동이나 사회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기에 경험한 아버지의 신체학대는 이후 대학생의 사회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신체학대는 대학생의 사회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연구[17]를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아동기에 경험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체학대가 이후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서로 다르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체학대를 구분해서 사회불안과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보다 명확한 관

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불안은 부모의 정서학대 및 부모방임과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즉, 부모의 정서학대와 부모방임은 사회불안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불안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의 정서학대와 방임은 사회불안과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사회불안을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상섭식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사회불안이 부적응적 섭식장애에 선행하고 동반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16,28]. 부모 학대를 경험한 개인이 이상섭식행동을 보이는 경우, 부모 학대로 발생한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이상섭식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간접경로를 인식하고 개인의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기에 부모의 정서학대나 방임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이상섭식행동을 나타내는 경우, 사회불안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회불안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고를 수정하거나, 사회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는 등 사회불안을 조절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입이 이상섭식행동을 줄이는 한 가지 개입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기 학대 경험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는 부모의 학대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부모 학대는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불안은 아동기에 받은 부모 학대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상섭식행동을 줄이기 위해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 등의 가정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한 개입과 교육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불안과 관련된 이론들은 사회불안의 치료에 있어서 인지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불안의 인지적 특징을 밝히는데 관심을 가져왔다[29,30].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수행에 있어서 과도하게 높은 사회적 기준을 가지며,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 신념이나 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고 치료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낮추고 조절할 수 있는 개입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학대를 예방하고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청소년의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아동들이 가정에서 양육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가 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심리적인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들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부모의 학대로 인해 아동이 심하게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된다[31-33]. 가정에서 주요 양육자나 부모가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자녀에게 학대의 형식으로 표현하거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에 대해 이제는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어린 아동을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치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무런 준비나 교육 없이 부모가 되어서 겪게 되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과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부모와 부모들을 물질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이 부모 학대의 영향을 받아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이상섭식행동은 여러 원인에 의해 시작되나 그 중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부모의 학대는 이상섭식행동의 예방과 개입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학대가 이상섭식행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불안이 그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동기 때 학대경험과 섭식장애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이 관계를 이상섭식행동과 관련지어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모의 학대를 예방하고 개입하는 것과 부모 학대로 인해 야기된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동기에 받은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이후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과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학대, 사회불안,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대상은 섭식장애나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받은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상섭식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결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회상된 기억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동기에 실제 발생한 부모의 학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에게서 받은 학대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연구방법이 활용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 학대, 사회불안,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밝히고 부모 학대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청소년기 이상섭식행동의 예방 및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1] M. S. Gwon, S. W. Choi, A study on the body image distortion and body dissatisfaction of women in their 20s. *Culture and Convergence*, Vol.42, No.12, pp.193-218, 2020.

[2] J. Wardle, A. M. Haase, A. Steptoe, Body image and weight control in young adults: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university students from 22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Vol.30, Issue 4, pp.644-651, 2006.
DOI: https://doi.org/10.1038/sj.ijo.0803050

[3] S. M. Kwon, Contemporary Abnormal Psychology, p.668, Hakjisa, 2013.

[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p.94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2013.

[5] A. R. Lucas, C. S. Crowson, W. M. O'Fallon, L. J. Melton III, The ups and downs of anorexia nervosa.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Vol.26, Issue 4, pp.397-405, 1999.
DOI: https://doi.org/10.1002/(SICI)1098-108X(199912)26:4<397::AID-EAT5>3.0.CO;2-0

[6] D. Cicchetti, S. L. Toth, Child maltrea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Vol.1, pp.409-438, 2005.
DOI: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1.102803.144029

[7] M. Caslini, F. Bartoli, C. Crocamo, A. Dakanalis, M. Clerici, G. Carrà, Disentangling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and eating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somatic Medicine*, Vol.78, Issue 1, pp.79-90, 2016.
DOI: https://doi.org/10.1097/PSY.0000000000000233

[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National Report on Child Abuse, Report,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 pp. 1-290.

[9] H. Y. Shin, H. L. Choi, The relations among child abuse by parents, child's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5, No.2, pp. 295-307, 2003.

[10] R. E. Norman, M. Byambaa, R. De, A. Butchart, J. Scott, T. Vos, The long-term health consequences of child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Medicine*, Vol.9, No.11, e1001349, 2012.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1349

[11] M. L. Molendijk, H. W. Hoek, T. D. Brewerton, B. M. Elzinga, Childhood maltreatment and eating disorder pathology: a systematic review and dose-response meta-analysis. *Psychological Medicine*, Vol.47, Issue 8, pp.1402-1416, 2017.
DOI: https://doi.org/10.1017/S0033291716003561

[12] B. Y. Ahn, *The effect of childhood trauma on bulimic behavior in female adolescent*,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08.

[13] J. W. S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maladjusted eating attitudes*.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Korea, 2013.

[1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epressive Disorders: DSM-5® Selections. p.13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2015.

[15] M. D. Anestis, A. R. Smith, E. L. Fink, T. E. Joiner, Dysregulated eating and distress: Examining the specific role of negative urgency in a clinical samp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33, Issue 4, pp.390-397, 2009.
DOI: https://doi.org/10.1007/s10608-008-9201-2

[16] N. T. Godart, M. F. Flament, Y. Lecrubier, P. Jeammet, Anxiety disorders in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co-morbidity and chronology of appearance. *European Psychiatry*, Vol. 15, Issue 1. pp.38-45, 2000.
DOI: https://doi.org/10.1016/S0924-9338(00)00212-1

[17] M. K. Jang, A Cross-cultur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6, No.5, pp.901-921, 2020.
DOI: https://doi.org/10.24159/joec.2020.26.5.901

[18] S. Y. Lim, S. S. Oh, Sociotropy and Social Anxiety of Single Women with Binge Ea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Psychotherapy: General*, Vol.27, No.2, pp.569-587, 2008.

[19] M. A. Straus, S. L. Hamby, Measuring Physical &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with the Conflict Tactics Scales, New Hampshire University, Durham, pp.1-5, 1997.

[20] G. Parker, H. Tupling, L. B.Brown,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Vol.52, Issue 1, pp.1-10, 1979.
DOI: https://doi.org/10.1111/j.2044-8341.1979.tb02487.x

[21] M. R. Liebowitz, Social phobia. *Modern Trends in Pharamacopsychiatry*, vol.22, pp.141-173, 1987.
DOI: https://doi.org/10.1159/000414022

[22] C. G. Fairburn, Z. Cooper, M. O'Connor, The eating disorder exa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Vol. 6, pp.1-8, 1993.

[23]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Issue 6, pp.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24]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Vol.13, pp.290-312, 1982.
DOI: https://doi.org/10.2307/270723

[25] H. J. Lee, Parental Maltreatment and Adolescent Depression and Anxie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9, pp.457-483, 2017.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7.09.24.9.457

[26] S. J. Kim, I. J. Chung, A Longitudinal Study of Persistent and Recency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43, pp.1-28, 2013.

[27] H. M. Yoon,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Child-Abuse to Psycho-social Mal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8, No.1, pp.173-206, 2017.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17.48.1.173

[28] J. Swinbourne, C. Hunt, M. Abbott, J. Russell, T. St Clare, S. Touyz, The comorbidity between eating disorders and anxiety disorders: Prevalence in an eating disorder sample and anxiety disorder sample.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Vol.46, Issue 2, pp.118-131. 2012.
DOI: https://doi.org/10.1177/0004867411432071

[29] D. M. Clark, F. McManus, Information processing in social phobia. *Biological Psychiatry*, Vol.51, Issue 1, pp.92-100, 2002.
DOI: https://doi.org/10.1016/S0006-3223(01)01296-3

[30] D. M. Clark, A. Wells,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The Guilford Press, 1995, pp. 69-93.

[31] H. K. Son, Mother in her 30s who beat her child to death. "I abused her, but I didn't know she was going to die, Yonhap News Agency, [cited 2020 April 10], Available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0118900065?input=1195m (accessed Feb. 27, 2022)

[32] J. S. Lee, An infant who has not registered a birth dies after neglecting it, MBC, [cited 2019, January, 23], Available From: https://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130442_29136.html (accessed Feb. 27, 2022)

[33] C. O, Joh, A child who was quarantined twice for abuse, went home at the request of his parents and..., Chosun Ilbo, [cited 2020 January 13], Available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3/202001130024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accessed Feb. 27, 2022)

장 미 경(Mikyung Jang) [정회원]

- 1992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학교상담석사)
- 1999년 1월 : 미국 보스톤대학교 심리학과 (청소년발달 및 상담 박사)
- 2002년 3월 ~ 2006년 1월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교수
- 2010년 9월 ~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사회적지지와 사회망 지향의 발달